REVIEW ARTICLE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13;24:57-64 *http://dx.doi.org/10.5765/jkacap.2013.24.2.57*

배역이 아역 연기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 영화 촬영 현장 및 관계자 면담 중심으로

반건호[1] · 김봉석[2] · 황준원[3] · 유희정[4] · 민정원[1] · 곽영숙[5] · 홍민하[1]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1]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2]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4]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5]

The Mental Effects on Child Actors in Playing a Role: Observations on Filming Sites and Interviews with Filming Personnel

Geon Ho Bahn, M.D., Ph.D.[1], Bongseog Kim, M.D., Ph.D.[2], Jun-Won Hwang, M.D., Ph.D.[3], Hee-Jeong Yoo, M.D., Ph.D.[4], Jung-Won Min, M.D.[1], Young-Sook Kwack, M.D., Ph.D.[5] and Min-Ha Hong, M.D.[1]

[1]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2]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3]Department of Psychiat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uncheon, Korea
[4]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5]Department of Psychiatry,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eju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Jeju,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sychological changes and influences of child actors depending on their role. First, we met the film producer of *Dogani* and discussed about the filming condition. Second, we visited filming locations during the filming of *Neighborhood*, when shooting of parts involving the female child actor was taking place and evaluated the emotional states of the child actor before and after she played her role. Third, we interviewed various people of the movie industry, which included adult actors, directors, a professor of films and broadcasting who was a former child actor and a scriptwriter. In case of the film Dogani, the production crew provided enough care and protection and we concluded that child actors had no psychological sequelae. After interviewing the child actor and visiting filming locations, we confirmed that the child actor was not influenced by playing certain roles. In addition, after interviewing various people related to filming, we thought that child actors might not have psychological sequelae related to the character played.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about influences of the playing character for child actors. We concluded that playing certain roles would not have negative effects on child actors.

KEY WORDS : Child · Adolescent · Actor · Movie · Psychological Influence.

서 론

2011년 영화 '도가니'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1] 장애인학교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한 점에서도 후폭풍이 엄청났으며, 영화 제작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 해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에 의해 출연한 아역 배우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영화 내용 자체가 학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는 내용을 여러 차례 담고 있었고, 아역 배우들의 연기 자체가 너무도 생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실제 상황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사실적이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영화진흥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고 아역 배우가 영화촬영과 관련하여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접수완료 : 2013년 5월 14일 / 수정완료 : 2013년 5월 25일
심사완료 : 2013년 6월 14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 Geon Ho Bahn,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3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130-872, Korea
Tel : +82.2-958-8556, Fax : +82.2-957-1997
E-mail : mompeian@khu.ac.kr

적으로 평가 및 필요시 치료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실제로 아역 배우가 영화촬영과 관련하여 심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근거중심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논문은 영화진흥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공동 주관하에 '아역 배우가 영화 배역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받을 것인가? 받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진행한 연구결과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으나 저자들이 찾아본 바로는 이 질문의 답을 구할 만한 연구자료는 없었다.

최초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영화 '도가니'에 출연한 아역 배우들에 대한 평가만을 목표로 하였으나, '도가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최초 가정한 '아역 배우가 배역에 따라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 참여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해 문헌 고찰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본 론

1. 초기계획

연구설계단계에서는 연구의 발단이 된 '도가니' 제작자를 면담한 뒤 진행방향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2012년 4월 23일, 본 연구진(반건호, 유희정, 황준원, 민정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태은정 과장이 '도가니'를 제작한 삼거리 픽쳐스 엄용훈 대표와 만났다. 엄대표는 우선 영화 '도가니' 제작시 아역 배우의 보호방법과 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작팀에서는 아역 배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여러 모로 신경을 썼으며, 특히 성폭력 장면 등은 보호장비 설치, 마네킹 사용 등 아역 배우에게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제작사 및 촬영 스태프들도 영화 특성상 부득이한 장면 촬영시 최대한 아역 배우의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화촬영에 임했던 성인 여배우들이 특히 아역 배우들을 챙기고 배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문제는 영화 제작단계가 아니라 영화 개봉 이후 국정감사 및 매스컴에서 아역 배우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여론에서 보이는 관심에 대해 아역 배우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마치 자신들이 촬영한 영화 자체의 문제로 오해하고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고 했다. 따라서 엄용훈 대표는 본 연구진과 출연 아역 배우들과의 만남 자체가 부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본 연구진에서도 연구진과 아역 배우들의 평가 만남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즉, '도가니' 영화 관계자 면담 내용 결과 아역 배우들에게 심리적 후유증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영화 '도가니' 관련 아역 배우들에게는 연구진의 접촉이 불필요한 부정적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삽화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도가니' 관련자 부분은 향후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하도록 조정하였다(Fig. 1). 하나는 실무 영역으로 1) 실제 아역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이웃사람(neighborhood)'의 제작 현장에서 아역 여배우를 관찰 및 평가하기(반건호, 민정원), 2) 배우, 연출가, 영화방송학과 교수, 작가 등 영화계 관계자와의 심층 면담 실시(반건호) 등이다. 다른 하나는 이론적 영역으로 1) 발달이론적으로 영화나 미디어가 아동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김봉석), 2)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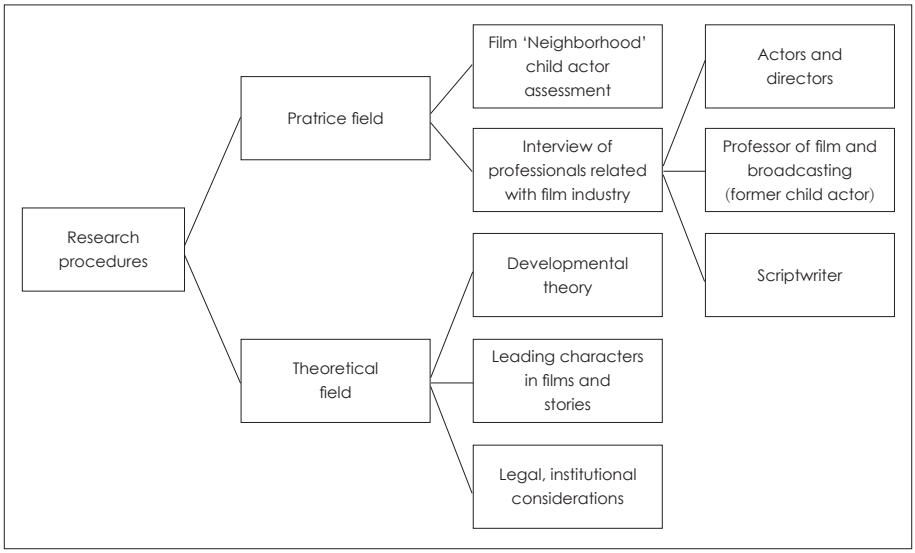

Fig. 1. Reseach design

나 동화 속 주인공 어린이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resilience 인자(유희정), 3) 아역 연기자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황준원) 등에 대하여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무 영역에 대한 연구 내용만을 보고하며, 이론적 영역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세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할 예정이다.

2. 영화 '이웃사람'의 아역 배우를 중심으로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

연구 방법의 모형을 문헌 고찰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선행 연구를 찾을 수 없어 임상의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구 과정을 설계하였다. 영화촬영 전후에 아역 배우를 면담과 심리검사 도구로 평가하고, 문제가 될만한 난폭한 장면의 촬영 현장을 연구진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1) 아역 배우 면담

(1) 사전면담(2012년 3월 30일)

대상 : 아역 배우 김새론

면담진행 : 반건호, 민정원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며,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며 친구관계도 원만한 편이라고 하였다. 현 시점의 스트레스 상황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하품을 하거나 주의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로 면담에 임하였다. 경계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사교성 있는 태도를 보였고, 면담 전에 엄마가 잘 이야기하고 오면 된다고 했다며 편안해하는 모습이었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주었다. 개인 면담 후 다섯 가지 심리검사 척도를 작성토록 하였다.

실무 영역 중 영화 '이웃사람'의 아역 배우는 극 중에서 살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심리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정하기 위하여 영화 촬영 개시 전과 촬영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설문검사도구를 실시하였다.

① Clinician-Administer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ale for Child and Adolescent(CAPS-CA)

아동 및 청소년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구조화된 임상 면접으로 Newmann과 Ribbe[2]가 개발한 도구이다. 국내에서는 Ku 등[3]이 표준화하였다. 외상적 사건에의 노출(진단기준 A1),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 등의 반응(진단기준 A2), DSM-IV[4]에서의 PTSD에 대한 17가지 증상들(진단기준 B-재경험, C-회피, D-과각성), 1개월간의 기간(진단기준 E),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진단기준 F), 8가지 부수 증상들을 평가한다. 각각의 증상에 대하여 빈도와 강도를 해당이 없는 경우(0점)와 가장 심한 경우(4점)로 평정하여 증상을 만족하는 항목이 DSM-IV 기준에 필요한 수만큼 충족이 될 때 PTSD로 진단한다.

② Chil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Reaction Index (CPTSD-RI)

어린이용 PTSD 반응 척도[5]로 직접 재난을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경우에도 사용하는 광범위한 설문지다. 전체 설문내용은 20문항이며, 중간에 역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설문에 성실하게 응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6]

③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K-CBCL)

부모가 4-17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적응 및 부적응 행동, 정서적 문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Achenbach[7]가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는 Oh 등[8]이 표준화하였다. 크게 사회능력 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Behavior Problem Scale)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를 사용하였다.

④ Impact of Event Scale(IES)

Horowitz 등[9]의 이론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척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의 대처과정에 역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Yi와 Eun[10]이 표준화하였다. 1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한 외상 사건에 관계되어 지난 7일간 경험한 주관적인 고통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하위 척도로서 PTSD 증상 중 침습과 회피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침습은 외상 사건에 대해 고통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감정, 심상을 평가하며, 회피 문항은 외상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둔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반응은 '전혀 없다', '드물게 있다', '간혹 있다', '자주 있다'의 4점 척도로 평가된다.

⑤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JTCI)

JTCI는 아동의 기질 및 성격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 원저자인 Cloninger 등[11]과 독일판 검사 개발자인 Goth와의 협의 하에 Oh와 Min[12]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JTC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4개의 기질차원과 3개의 성격특질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86문항으로 각 문항은 0-4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기질 특성은 자극 추구(Novelty seeking), 위험 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인내력(Persisten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 특성에는 자율성(Self directedness), 연대감(Cooperativeness), 자기 초월(Self transcendence)이 있고 자기 초월 영역은 ST1(Fantasy), ST23(Spirituality)의 두 세부 영역으로 다시 나누어 평가한다.

심리검사 척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CAPS-CA에서는 외상성 사건 경험 항목에서 과거 영화 촬

영으로 인한 것보다는 학교 생활에서 또래관계 문제, 동생들과의 일상적 갈등 등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외상 사건 재경험, 외상 자극에 대한 회피와 마비, 각성 증가, 수면/분노/집중력문제 등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CPTSD-RI는 2점('잠을 잘 잔다' 항목에서 '가끔 그렇다'로 채점. 0-11 사이면 아무 문제 없음)으로 체크되었고, IES는 6점으로 '잠이 들거나 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 사건에 관한 꿈을 꾼다' 등의 항목에 '가끔 있다'로 표시하였으나 총점으로 볼 때 생활을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JTCI(7-11세 기준)에서 적극적이며 자기 주도적이고 협동적인 성격으로 확인되었고, K-CBCL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다.

(2) 중간면담 (촬영장 방문. 1차-2012년 4월 19-21일, 2차-2012년 5월 15-16일)

두 차례에 걸쳐 민정원 연구원이 아역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의 촬영장을 방문하였다. 1차 방문은 아역 배우가 납치를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4월 19일에 맞추어 부산 소재 세트장에 도착하였다. 4월 2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지하실에서 고통스러운 장면을 찍는 촬영장에서 함께 지냈다. 촬영 전이나 촬영 동안에 아역 배우가 혼자 있는 경우는 없었으며, 소속사의 매니저, 아역 배우의 어머니, 성인 배우 및 스태프들과 활발하게 어울리고 중간 중간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납치 당하는 장면 촬영시에는 무서운 장면을 반복해서 찍고, 감독을 포함한 스태프들이 좀 더 실감나는 연기나 동작 등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촬영 중간 중간에 감독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아역 배우가 괜찮은지를 자주 묻고 확인하였으며, 가해자 역할의 성인 남자 배우는 연기가 끝나면 장난스럽고 편안하게 아역 배우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등 지지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었다. 2차 방문 시에도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였고, 촬영 진행에도 무리가 없었다. 아역 배우는 이전처럼 촬영장에서 잘 놀고 어른들과 장난을 치고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세트장 촬영이었던 4월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두 차례의 현장 방문에서 느낀 점은 아역 배우가 무서운 상황을 연기할 때 실제와 유사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겠으나, 장면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촬영하는 영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감정이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였다. 촬영장의 분위기, 성인 배우나 관계자들과의 관계도 아역 배우에게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촬영 종료 후 면담(2012년 8월 10일)

대상 : 아역 배우 김새론, 어머니, 제작사 관계자(석재승 PD)

면담진행 : 반건호, 유희정, 영화진흥위원회 태은정 과장, 박민철 과장

면담 시기는 영화 촬영 종료 후 편집과정 단계였으며, 개봉 임박한 시점으로 촬영 진행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진행요령은 사전면담과 달리 평가도구를 직접 적용하지 않고 자유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제작과정에서의 아역 배우 보호 및 돌봄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고, 심리적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면담 종료 후 면담 내용에 준하여 심리 척도를 간접 평가한 결과 촬영 개시 전 상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촬영 현장에서 아역 배우가 살해되는 장면 등이 있었으며, 그 장면에서는 마네킹 사용 등 아역 배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아역 배우가 한 명 밖에 없었고, 역할의 비중이 주연급이었으므로 아역 배우를 중심으로 촬영 시간표도 편성되었고, 촬영 현장에서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2) 아역 배우 어머니 면담(2012년 4월5일)

면담진행자 : 반건호

(아동의 어머니와 양육배경 및 영화 입문 이후 생활에 대하여 면담을 진행함. 사적인 내용은 생략함.)

아동의 가족은 대체로 아동의 배우 생활에 대해 지지적인 편이며 어머니가 과거 영화 일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아동의 어머니는 과거 아동이 다른 영화에 출연할 당시에도 아동의 심리적 영향을 우려하여 심리상담사와의 면담을 영화제작사 측에 요청했었다고 하였다. 이번 영화 제작시에도 같은 요청을 하였고,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영화진흥원의 이번 사업 취지에 찬성하여 면담에 응하게 되었다.

영화에 몰입하고 감정 이입하면 후유증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그런 거 없는 거 같다. 잘 이겨낸다. 물론 잠꼬대도 하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이들이 자기를 연예인이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마음대로 화도 못 내고 참아야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다. 그리고 거만하게 보일까 봐 신경 쓴다. 나도 아이에게 그럼 안 된다고 말해준다."

어머니의 정서 상태 및 성격특성 평가를 위해 증상점검척도(SCL-90-R)[13]와 미네소타다면적인성검사-2판(MMPI-2)[14]를 실시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다.

3) 영화 관계자 면담

아역 배우의 영화 촬영과 관련된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직역의 영화관계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하였다. 아역 배우 경험이 없는 성인 배우, 아역 및 성인 배우 연출 경험이 있는 연출자, 아역 배우 출신의 현직 영화방송과 교수, 방송작가 등을 섭외하여 각각 면담하였다.

(1) 성인 배우 및 연출가(2012년 9월 4일)

참석자 : 연기강사 김보영, 연출가 김수연, 현직배우 신현실

면담진행 : 반건호

아역 배우에 대한 배려 부분에 있어서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등 각종 매체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나, 아역 배우에 대하여는 종사자 자체가 특수한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배려와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단, 노동시간 및 학업에 대한 배려는 아역 배우의 소속사나 부모가 챙겨야 할 문제이다.

역할 몰입을 위한 감정이입에 따른 후유증에 관하여 생각해보면, 연기를 위해서는 배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지만 아역 배우에게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각 장면에서의 공감 정도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이입과 공감 과정에서 참여자아/관찰자아 혹은 주의식/보조의식 개념을 적용한다면 연기 후 현실 상태로 전환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15,16] 아동 연기자들은 아동의 특성상 탄력성과 융통성이 성인에 비해 크기 때문에 배역에서 현실로의 복귀가 더욱 수월할 것이다. 사이코드라마에서도 특별히 연기 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나 자발적 참여자도 사이코드라마 기법을 통해 쉽게 새로운 인물에 몰입할 수 있지만, 쉽게 현실로 복귀가 가능하다. 어린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역할극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놀이가 끝나자마자 바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훌륭한 배역에의 몰입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연기'이다. 연기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역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기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생긴다.

최근에는 연기 혹은 교육놀이가 아동의 정서 및 인지 발달, 또래관계 향상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7] 따라서 충분한 안전장치와 배려가 주어진다면 아역 배우가 영화에서 배역을 맡고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인지행동발달에 유익할 것이다.

(2) 아역 배우 출신 현직 영화방송과 교수(2012년 10월 5일)

대상자 : 서일대학 영화방송과 학과장 교수 민대진

면담진행 : 반건호

'아역 배우가 역할을 마치고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아역 배우마다 다양한 과정을 겪는데 개인차가 많을 것이다. 흔히 본인의 경험상 아역 배우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키가 자라지 않는 것'과 '시력 손상'이다. 어릴 때부터 야간촬영,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조명을 바라 보면서 생활하니까 시력이 나빠진다. 유명한 아역 배우들의 사례를 잘 살펴보면 키가 작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연기자 생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연극,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가 각각 아역 배우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민대진 교수 자신은 영화보다는 텔레비전 배우로 데뷔했고, 연기 생활 후반에 영화를 몇 편 찍기는 했다고 한다. 지금은 연극 지도를 많이 한다. 민 교수의 경험상 각각의 영역은 많이 다르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장기간 지속되고 영화는 단기간 몰입한다. 연극은 텔레비전보다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기간은 짧을 수 있지만 연습기간이 있고, 매일 공연하게 되므로 배역에 더 몰입해야 한다.

역할 몰입을 위해 감정이입 필요한 데 후유증은 없을까에 대하여 개인차가 많기는 하겠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역 배우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어렵다. 성인 배우가 주도하고 아역은 보조역할이다. 따라서 그만큼 역할 몰입에 대한 부담은 적다. 감독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요구만 할 뿐이다. 그래서 역할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지는 않다. 오히려 배우 생활 자체가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학교생활 빼먹기라든가 인기 저하로 인한 상대적 자존감 저하 등이다.

아역 배우가 전업이 가능한가? 학교 수업에 열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기자 생활에 문제가 생겨 일반 학생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쉽지 않다. 외국처럼 아역 배우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한다면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경우 밤 10시 이후에는 아역 배우가 새로운 촬영에 들어갈 수 없고, 학교를 빠지게 되면 개인교사를 동원하여 수업을 따라가도록 한다. 내 경우도 청소년기에 비교적 빨리 결단을 내려서 연기자를 포기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하였다.

어린 시절 배우 생활은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처음에는 학교수업 빼먹고 팬들이 선물도 주고 해서 즐겁게 배우 생활을 했다. 물론 집안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도 재미다. 내 경우 경제적 문제는 별로 없었기에 이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때로 아역 배우가 소년가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길 수 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아동을 혹사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연기자 생활은 어른들의 세계이다. 그래서 또래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연기를 그만둘 경우 적응이 쉽지 않다.

'아역 배우는 대개 부모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에 대해 그런 경우가 많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대답이다. 내 경우도 친구 따라 오디션 갔다가 그 옛날 동양방송에서 캐스팅된 경우다. 물론 부모님의 승락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나와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부모님의 의지에 의한 경우가 있기는 했다.

요즘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훗날 입시 등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 연기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연기는 고도의 집중력과 팀웍이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

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역 배우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내가 어릴 때는 아역 배우란 그냥 성인 배우들의 액세서리 같은 존재였다. 제대로 된 식사나 냉난방 등 제반 시설이 열악했다. 요즘 말하는 소위 '밥차'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아역 배우가 맡는 배역 자체가 인성 발달이나 정서상태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우 생활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성인으로 자라면서 신장이나 외모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 연기 자체의 성숙도가 충분치 못한 것, 새로운 직업이나 대인관계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3) 방송작가 면담(2012년 10월 12일)

대상 : 방송작가 김미숙

면담진행자 : 반건호

아역 배우도 당연히 배역에 따라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성인 배우의 분량만큼 많지 않다는 점,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한 배역에 매어 지내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이 차이점일 것이다. 아역 배우가 성공할 경우, 일찍 가장이 되고 직업인의 세계에 빨리 뛰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아역 배우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역 배우의 어머니들 대부분의 꿈이 배우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란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꿈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경우 아이의 인생이 없어질 수 있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아역 배우의 배역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본다. 오히려 아역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갖는 문제, 즉, 아동이기는 하나 직업인이라는 점과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 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토 론

영화나 텔레비전 등 미디어가 대중, 특히 소아나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18] 막상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배우에 대한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진들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추측하였다. 먼저, 연기자가 되는 것은 자발적 동기에 의한 행위이므로 배우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심리적 변화나 상태에 대해 평가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둘째, 영화 관련자들의 입장에서는 연기자가 배역에 몰입하고 잘 소화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작업이 끝난 뒤 배역에 몰입한 것으로 인한 후유증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영화관련 업계에서 그러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설계 당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다. 선행 연구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었다. 영화나 연극의 삼대 요소 중 무대, 관객에 대한 자료가 풍성한 반면 막상 영화나 연극을 수행하는 배우 입장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영화관련 잡지 중 한국영화학회에서 발행하는 연구재단 등재지인 '영화연구'와 한양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인 '현대영화연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찾아보았다. 배우 입장에서 영화를 조망한다거나 배우의 극 중 배역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대한 논문은 없었으며, 특히 아역 배우를 주제로 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다. 오진곤이 1970년대와 1980년대 고교생 관련 영화에 대해 비교한 논문[19]과 1970년대 아역 배우 주연 영화에 대한 논문[20]이 있었으나 배우 입장보다는 영화 내용을 토대로 한 시대상 비교였다.

따라서 영화 현장 참여 연구 설계시 임상의학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듯이 촬영 개시 전, 촬영 기간 중, 촬영 종료 후 아역 배우의 심리 상태를 면담 및 심리검사 도구로 평가하는 구도로 진행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역 배우의 심리 상태 파악 이외에 연구 설계 당시에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영화 현장과 영화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직종의 인적 요인이다. 감독, 연출부터 현장 진행요원에 이르는 많은 직종이 배우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배우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아역 배우 개인의 학습권 등 사생활 관련 부분이다. 연구 중 알게 된 미국 배우 조합에서 발행한 미성년 연기자들을 위한 규정집[21]에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서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셋째, 아역 배우는 미성년자이므로 어머니 등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특히 아역 배우의 연기자 생활 지속 여부는 아동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촬영 장소에 따라 이동이 많고 촬영 업무 시간의 불규칙함 등의 특성 때문에 어머니가 동반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 다른 형제나 가족의 입장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연구 내용에서 이 모든 요인을 포함시킬 수 없었으며, 추후 연구에서 이런 요인에 대한 분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촬영 현장에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성인 배우와 달리 미성년자이며 학생 신분인 아동 배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다. 앞서 말한 SGA에서는 AFTRA-SAG Young Performers Handbook을 1990년 한 차례 출간한 바 있고,[22] 2010년 인터넷 판으로 Young Performers Handbook[21]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 교범에는 아역 배우의 연기생활에

대한 사소한 부분까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 중 일부를 살펴 보면 학생들의 경우 연령이나 학년에 따라 일일 작업 참여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9-15세의 경우 학기 중에는 하루에 최소 3시간은 수업을 받아야 하며, 촬영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시간이다. 작업 개시 시간도 오전 5시 30분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고 밤 10시 이후에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 소속사에서 아역 배우의 수입에서 소위 수수료로 떼는 돈도 1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 놓았으며, Coogan 법이라고 하여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수익의 일정 부분을 Coogan 계좌를 만들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아역 연기자의 권리 및 작업환경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아역 배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규정이 아동의 심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작가, 연출가, 배우, 영화관련학과 교수 등 영화계 관련자들과의 심층 면담시 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아역 배우의 경우 배역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보다는 배우라는 직업 특성이 성장 및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면담에 응한 관계자들의 개인적 경험과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 본 의견이므로 아역 배우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자료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대중의 관심은 배역의 영향보다는 소위 '스타덤'에 오른 아역 배우의 성장과정에 쏠리는 경우가 많다.[23] 그들은 과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인기로 진입할 것인가? 아역 배우 출신인 Jodie Foster, Natalie Portman, Brooke Shields 등은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영화업계로 돌아오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성인기로 넘어갔다. Leonardo DiCaprio, Scarlett Johansson, Kristen Stewart 등도 마약이나 술 문제에 연루되지 않고 성인 연기자로 성장하였다. 한편 Patty Duke, Macaulay Culkin, Drew Barrymore 등은 술과 마약 문제로 곤경을 치뤘다. 일부 연기자들은 자살하거나 타살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폭력문제로 구속되기도 한다. 연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아역 배우들도 성인기 주제에 일찍 노출되고 술과 마약, 섹스 문제에 연결될 확률도 높은 듯하다. 따라서 배역 자체보다는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아역 배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진은 임상의사들로 구성되었고 영화관련 전문지식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아역 배우의 정신건강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으며, 한 편의 영화제작 현장과 소수 영화관련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한 논문이므로 본 연구 결과가 아역 배우의 배역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 내용과 공동 연구자들이 검토한 후속 연구자료(발달이론적 고찰, 탄력성 요인 연구,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를 시작할 때 가졌던 "영화 배역이 아역 배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잠정적이나마 영화 배역 자체는 아역 배우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향후 연구 설계시 유소아 및 청소년 배우까지 다양한 발달단계에 있는 배우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소아정신건강의학전문가 외에 영화관련 전문가, 교사, 법조인, 기획사 등 아역 배우와 관련된 직역의 협력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저자들이 알기로 본 연구는 영화배역이 배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초의 현장연구이다. 특히 아역 배우에 대한 내용이므로 더욱 의의가 있다. 현장 연구 결과 외에 다양한 영화 관련자들과의 심층 면접 결과를 종합한 결과, 영화에서 배역을 연기하는 아역 배우는 배역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이나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심 단어 : 아동 · 청소년 · 연기자 · 영화 · 심리적 영향.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영화진흥원 연구지원금(2012)으로 진행되었음.

References

1) **The Good Law.** 2011. Availble from URL:http://www.goodlaw.org/bbs/view.asp?id=b_2011pds_bd&menu=inspection&b_idx=3220&page=1.
2) **Newman E, Ribbe D.** Psychometric review of the Clinician Administered PTSD Scale for Children. In: Stamm BH, editor. Measurement of stress, trauma, and adaptation. Lutherville: Sidran Press; 1996. p.106-114.
3) **Ku JI, Kim TH, Eun HJ, Choi MR, Lee SM, Cho SJ, et al.**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n the Korean Version of Clinician Administered PTSD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6;45:571-577.
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5) **Pynoos RS, Frederick C, Nader K, Arroyo W, Steinberg A, Eth S, et al.** Life threat and posttraumatic stress in school-age children. Arch Gen Psychiatry 1987;44:1057-1063.
6) **Seoul Child & Adolescent Mental Health Center.** Mental health-screening test scale book for child and adolescent community center. Seoul: Seoul Child & Adolescent Mental Health Center;2007.
7) **Achenbach TM.**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1991.
8) **Oh KJ, Lee HR, Hong KE, Ha EH.** K-CBCL. Seoul: JungangJuksung Publisher;1997.
9) **Horowitz M, Wilner N, Alvarez W.**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 Med 1979;41:209-218.
10) **Yi SM, Eun HJ.**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on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9;38:501-513.
11) **Cloninger CR, Oryzbeck TR, Sorakie DM, Wetzel RD.**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Centre for Psychobiology of personality, Washington University;1994.
12) **Oh HS, Min BB.**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Seoul: Maumsarang Ltd;2004.
13) **Kim KI, Kim JH, Won HT.**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eoul: JungangJuksung Publisher;1984.
14) **Kim JS, Han KH, Lim JY, Min BB, Moon KJ.** MMPI-2: Manual for Korean version of MMPI-2. Seoul: Maumsarang Ltd;2005.
15) **Eldredge SA.** Mask improvisation for actor training and performance: the compelling image. Chicago: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1996.
16) **Emigh J.** Masked performance: the play of self and other in ritual and theatre. Philadelphia: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6.
17) **Furman L.** In support of drama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gain. Early Child Educ J 2000;27:173-178.
18) **Strasburger VC, Jordan AB, Donnerstein E.** Children, adolescents, and the media: health effects. Pediatr Clin North Am 2012;59:533-587, vii.
19) **Oh JG.** A study on 'High School Movie' in the 1970's and the 1980's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 movies <Yalkae-a joker in high school>(1977) and <Happiness does not come in grades>(1989)-. Contemp Film Stud 2011;12:189-233.
20) **Oh JG.** The popular tendency and periodical peculiarity of the 1970s South Korean children's movie, <The World without Mom> (1977). Film Stud 2012;52:255-286.
21) **Screen Actors Guild (SGA).** Young performers handbook. 2010. Available from URL: http://youngperformers.sagaftra.org/files/youngperformers/YPH_FNL3.pdf.
22) **Bradley J, Frederickson C, Gordon B, Harrah M.** AFTRA-SAG Young Performers Handbook. Los Angeles: AFTRA-SAG; 1990.
23) **Horrell WB.** The child performer: The making of a star. June 22 2011. Available from URL: http://www.psychologytoday.com/blog/in-the-trenches/201106/the-child-performer.